

분체를 확실히 아는 조건 위에
전도의 조건이다

작성일 : 2013. 09. 04. 새벽 1시 20분
작성자 : 정솔향

(<분체가 누구인지, 성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행하는 것이 조건이다. 분체가 누구인지, 성자가 누
구인지 확실히 알면, 그 능력과 권세가 와서 행하게
된다. 고로 받은 자만

알고 행한다.> 라는 말씀에 따라
진정 성자와 분체를 확실히 알고 행하고 싶다고
간절히 간구했을 때 성자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 성자의 말씀 *

내가 진정 그를 깨닫고자 하느냐.

(아멘.)

왜 그를 깨닫고자 하느냐.

(그를 확실히 아는 만큼 저의 행함의 차원이 달라지
고
저를 쓰고 역사하시는 성자의 권세와 능력이 달라지
지 않습니까. 진정 분체를 확실히 알고 행하여 하나
를 하더라도 성자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는 자
가 되고 싶습니다.)

너의 온전함을 위해
가장 먼저는
그를 아는 것이다.
그를 아는 자
행함의 차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

너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를 얼마만큼 알고 가는 자인지
분별할 수 있다.

그가 누구냐.
성경에 예언된 자가 아니더냐.

< 요한계시록 19장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
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 그 눈은 불꽃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
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
가 없고
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
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
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을 밟겠고
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
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

(아멘.

진실로 그가
성경에 예언된 자임을 시인합니다.)

그는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는 자요,
삼위의 몸이 되어
실존의 역사를 이루는 자다.
깨닫고자 구하는 자만
알고 가는 역사다.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겠느냐.
내가 육신으로 실존체가 되어서
그를 통해 조건을 쌓아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
이 시대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나 성자를 가두고 때리고 핍박했다.
마치 신약 때 나를 그리 했듯이 그리하였다.

하지만 마지막 역사는 다르다.
나의 육신이 살아 있다.
그는 나의 몸이다.
육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자는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온다.

그를 위해 기도해도
그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
시대 메시아를 알고 구하는 것이
참으로 크다.

< 누가복음 23장

39.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

보아라.
신약시대 때
나사렛 예수가 죄인 취급을 받으며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때
그를 알아본 자는 구원을 얻었다.
그의 행함이 그리도 큰 것이었다.
그를 알아보는 조건이 그리도 크다.

그를 아는 것이 참으로 큰 것이다.
구하여라.
구해야 알게 되고 얻게 된다.
그를 아는 만큼
행함의 불이 붙게 된다.
시대 사명자를 깨달아야 불이 붙는다.
넘지 못할 산을 넘게 되고
행치 못할 일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신약의 분체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
사도들은 절대 포기 하지 않았다.
더 불을 받고 행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시대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도들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심정에는 눈물이 흐르나
남아진 자신들의 운명에
그들은 두려움을 가졌다.

그리하여 나 성자는 육신을 잃은 고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깨닫게 하였다.
나의 육신, 곧 분체의 몸을 쓰고 나타낼 수 없으니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영의 눈을 뜨게 했다.
그들이 영의 눈으로
메시아를 확인하게 하였고
영의 세계를 인정하게 하였다.

성령을 받았고 시대를 깨달았으며
자신들이 따르던 선생이
시대 메시아임을 확신했다.
그때부터 메시아의 희생을 외치고 전했다.

선생을 잃고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확실히 깨달았다.
그가 시대 구원자 곧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깨달았음을 어찌 알 수 있느냐.
그들의 행함을 보아라.
그들의 깨달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빛은 전과 같지 않았고
그들의 행함도 전과 같지 않았다.
그들의 말도, 삶도 모두 바뀌었다.

깨달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신했고
시대 메시아의 희생임을 확신했다.

그들의 확신과 깨달음의 행실을 통해
수많은 자들이 전도되었다.
성경은 실체의 역사다.

< 사도행전 3장

6.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

고

8.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면서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행전 4장

7.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
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9.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
면

10.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
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
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
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
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
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5장

40.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
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
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
니하니라. >

사도들의 행함을 보아라.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바로 시대의 메시아를 확실하게 깨달았다.

고로 그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켰다.

그를 성령으로 증거하며 외쳤다.

자신의 깨달음을 전한 것이 아닌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외쳤다.

메시아를 확실히 깨달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너희가 능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사도들의 행함이 그때뿐이겠느냐.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이 깨달은 자는

신약의 사도보다

차원 높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느냐.

시대 분체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며

걸지 못하는 자가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였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증거하니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신약의 사도들이

주를 깨닫고 무엇을 하였느냐.

각 지역을 다니며 전도했다.

주를 깨달은 자들은

가만히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 살지 않았다.

세상에 나가 메시아를 증거하며

생명들을 전도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다.

지나가던 자를 전도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모아 전도하며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외치고 성령의 은사를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메시아를 확실하게 깨달으니

가만히 기도만 하지 않았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복음을 외치고

희생한 시대 구원자를 증거하였다.

고로 새로운 생명을 구원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행해야겠느냐.

(아멘. 기도하며 분체를 진정 제대로 깨달아

그를 증거하며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조건을 완전하게 행하셨
으니

저희는 그 말씀에 따라 말로만이 아닌 실천과 행실
로

시대 사명자를 증거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성자와 분체의 능력과 권세로 행하게 하소서.)

나는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고 돕는다.
네가 행하고자 하면
포기치만 않고 행하면 된다.
내가 반드시 함께하리라.

신약의 사도들이
나와 함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지금은 보다 차원 높은 역사의 페이지 옴나.
이때에 맞는 차원 높은 역사를 함께 이룰 것이다.

사도들은 늘 기도하였다.
예수가 죽고 없으니
항상 기도함으로 그를 만났다.
하늘과 영적 소통을 통해 힘을 얻고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외친 것이다.

너희도 그리하여라.
지금은 선생을 보기 어려운 때다.
하지만 혼체로 보고 소통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나.
사도들과 같이
기도함으로 소통하고 힘을 얻어라.

선생도 목숨 걸고 조건의 기도를 행하고 있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여라.
그리하여 그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고로 힘을 얻어 행하여라.

이 역사가 누구의 것이냐.
나 성자의 역사이니
내가 반드시 함께하리라.

모두 나 성자와 선생과 함께 전도하자.
생명 구원이다.
구원하지 않으면 모두 사망이다.
나 성자와 분체를 확실히 알고 깨달은 자
반드시 행할 것이 있으니
말씀과 전도다.

올해 표어 말씀과 전도의 해이지.
이것이 비밀의 말씀이다.
비밀의 조건이다.
말씀과 전도의 해.
먼저는 나 성자와 분체를
확실히 알고 깨닫는 것이다.
아는 자, 깨달은 자
말씀과 전도의 해
조건을 지키고 행한 자가 된다.

선생을 알고 깨달은 자는
아직 수료를 하지 않아도
생명을 전도한다.

그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니
이 역사를 깨닫게 되고
마치 신약의 사도들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생명을 전도하게 되는 것이다.

먼저는 시대 분체를 확실히 알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행하여라.

고로 말씀과 전도의 해.
말씀의 조건을 지키며
전도의 공적을 쌓는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여
비밀의 말씀을 전하고 간다.
지켜 행하는 자는 큰 대가를 받는다.
행한 자만 아는 세계다.
행함의 조건으로
얻을 것을 얻고 받을 것을 받아라.
온전한 행함이다.

시대의 메시아를 확실히 깨닫는 것이
그리도 크다.
알고 행하여라.
너희의 영원한 사랑 성자니라.